

KCA 6G Workshop

일시 2026년 2월 4일(수) 13:00~14:20

장소 모나 용평 타워콘도 1층 오플룸

특별세션 소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정부의 주파수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2028년 6G 국제표준 제정 및 2030년 6G 상용화에 대비해 국내전문가분들을 초청해 6G 기술특성과 핵심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본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KICS 동계종합학술발표회 특별세션으로 개최되는 본 워크샵에서는 6G 시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진화 및 모바일 트래픽 트렌드, RAN기술 동향, 무선국의 네트워크 복원 기술 등에 대해 국내전문가 발표와 함께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소속)
13:00~13:05	개회식	좌장: 이성협 단장/공학박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3:05~13:35	모바일 트래픽 트렌드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진화	박병성 테크니컬디렉터 (에릭슨 코리아 파트너스)
13:35~13:55	재난·장애 대비 무선국 복원역량 진단 및 대응능력 강화	김경근 팀장/공학박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3:55~14:15	6G RAN 중심 국내외 최신기술 동향	백상현 교수/공학박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14:15~14:20	폐회식	

특별 홍보 부스 안내

▶ 내용: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종료 정책 홍보

▶ 위치: 컨퍼런스 행사장 입구 앞

강연 소개

좌장 / 이성협 단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차세대전파혁신단 단장

- 경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 (공학박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지털전략단장
- 現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차세대전파혁신단장

모바일 트래픽 트렌드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진화

박병성 테크니컬디렉터

에릭슨 코리아 파트너스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LG 전자 UMTS 연구소 책임연구원
- LG-Nortel Carrier Network 사업부
- 에릭슨 엘지 R&D 센터 수석연구원
- 現 에릭슨 코리아 파트너스 네트워크솔루션 테크니컬디렉터

5G 단독모드(SA) 확산과 함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초저지연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기존 스트리밍 위주의 서비스와는 다른 트래픽 특성을 보여주며,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과 몰입형 XR 기기 기반의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 변화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운용과 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에서는 모바일 트래픽 트렌드와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필요 역량과 진화 방향을 소개한다.

재난·장애 대비 무선국 복원역량 진단 및 대응능력 강화

김경근 팀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혁신추진팀 팀장

-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공학박사)
- 現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혁신추진팀 팀장

도서·산악지역 기지국 대상, 기술환경 요소(고도, 장비, 예비전원, 접근성등)와 국민 인식요소(통신 신뢰도·두절 우려·복구 기대 등)를 통합 분석하여 복원 역량을 수치화한 DER(Digital Emergency Resilience) 지수 산출로 고위험 국소를 선별하여 복구우선 정책 지원을 위한 실증 기반 마련을 논의한다.

6G RAN 중심 국내외 최신기술 동향

백상현 교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박사)
- 現 한국통신학회 상임이사

- IEEE/대한전자공학회 IT 젊은과학자상(2017)

- 한국통신학회 해동신진학술상(2013)

- 現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6G의 핵심기술인 무선접속망(RAN: Radio Access Network) 관련된 ITU, 3GPP 등 국제표준기구에서 논의 중인 표준화 및 국내외 표준화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핵심기술인 기술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6G RAN 기술의 특성과 연구방향 등에 노의한다.